

김경민 “매 시즌이 도전…올해도 광주의 든든한 수호신”



GWANGJU
FOOTBALL CLUB

위기 속 더 빛나는 수문장…광주와 3년 계약 연장
“건강·민심의 시즌…실점 낮추고 좋은 성적 낼 것”

“매번 새로운 도전”이라며 광주FC의 베테랑 수문장 김경민(사진)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의 험난한 시즌이 예상되지만 김경민은 올 시즌에도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다시 그라운드에 오른다. 그는 광주FC와 3년 연장 계약을 하면서 2028년까지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4년 제주에서 프로 무대를 밟은 김경민은 이후 부산에서 임대 선수로 활약했고, 서울이랜드를 거쳐 2022년 광주에 등지를 옮겼다.

광주에서의 첫해 34경기에 나온 그는 16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28실점으로 골대를 지키면서 ‘최소실점팀’ 광주의 K리그2 우승 주역이 됐다.

K리그2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린 그는 K리그

1에서도 광주의 든든한 수호신이었다.

2024년에는 33살의 나이에 ‘늦깎이 국가대표’가 됐고, 지난해에는 ACL E 8강전에서 알 힐랄을 상대하기도 하는 등 광주에서 역사의 순간을 함께했다.

광주는 올 시즌 이정호 감독의 이적과 함께 상반기 선수 등록 금지 제재라는 악재를 안고 새로 출발한다.

사령탑으로 첫 시즌을 앞둔 이정호 감독에게 베테랑 김경민은 든든한 힘이다. ‘공격적인 수비’를 강조하는 만큼 김경민은 광주 전략의 핵심 선수가 자 빌드업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많은 기대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마음이다.

김경민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동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더 좋아지고 성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걱정은 없다.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팀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지만 선수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는 만큼 김경민은 넓은 시야로 동료들을 보고 있다.

그는 “모든 선수에게 기회고, 출전의 꿈을 가진 선수들이 있다.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한다.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경민에게도 도전의 시즌이다. 그는 조심으로 신인의 자세로 또 다른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믿음’이다.

몸을 사리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김경민은 경기 도중 충돌로 신장 파열과 안와 골절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열렸던 코리아컵 결승에서도 조성권과의 충돌로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나오기도 했다.

“굴키퍼는 그런 자리”라며 웃은 김경민은 “매번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 시즌을 앞둔 마음을 이야기했다.

또 “전반기에 좋은 순위 유지하고, 실점을 낮추면서 다른 팀이 범 잡을 수 없는 팀 컬러를 만들고 싶다”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또 서로 믿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면 무서운 팀이 될 것이다”고 광주가 써 내려갈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앞두고 ‘부상 도미노’…중원 고민 깊어진 홍명보호

박용우·원두재 이어 백승호까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넉 달 앞두고 홍명보에 부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미드필더 백승호(28·버밍엄 시티)마저 쓰러지면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중원에 큰 구멍이 생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승호는 11일 영국 버밍엄의 세인트앤드루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과의 홈경기(0-0 무승부)에 선발 출전했다가 어깨를 다쳐 전반 15분 만에 교체됐다.

전반 12분 카이 바그너의 코너킥에 헤딩슛을 시도한 뒤 작지 과정에서 왼 어깨에 충격을 받아 결국 토미 도일과 교체됐다.

버밍엄 지역 소식을 전하는 버밍엄라이브에는 백승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유니폼 상의로 왼팔을 고정하는 모습의 사진이 실렸다.

백승호는 지난해 11월 미들즈브러와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전반 5분 만에 어깨를 다쳐 국가대표팀의 A매치 2연전에 참여하지 못한 바 있다.

A매치 2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한 백승호는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키워왔다.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는 패스와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고, 프리킥이나 중거리 슈팅 능력도 갖췄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1-4 패)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기습적인 중거리 솟으로 만회 골을 넣기도 했다.

백승호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넉 달 앞둔 시기에 대표팀에도 걱정거리 하나가 더 생겼다.

앞서 대표팀은 박용우(알아인)가 지난해 9월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전열에서 이탈한 데 이어 원두재(코르 파칸)가 최근 소속팀 경기에서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잇달아 잃는 악재를 만났다.

구단에 따르면 원두재는 수술 후 회복까지 4~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빠르게 회복한다고 해도 월드컵 본선까지 제 경기력을 되찾기는 어려울 거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공격 성향이 강한 백승호마저 전열에서 빠진다면 홍명보 감독의 중원 운용 구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표팀 주요 공격 옵션 중 하나인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까지 부상으로 한동안은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게 돼 홍 감독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지게 됐다.

황희찬은 지난 8일 첼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1-3 패)에 선발 출전했다가 전반 43분 종아리 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교체됐다.

톱 에드워즈 울버햄프턴 감독은 12일 치를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은 결장한다. (북귀에) 몇 주는 걸릴 것”이라면서 “종아리 부상”이라고 밝혔다.

/연철뉴스

광산남부스포츠클럽, 나주 동계 유소년 축구대회 U-10 우승

U-12 부문 3위 등 성과

광산남부스포츠클럽 유소년 축구부가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광산남부스포츠클럽은 최근 나주스포츠파크 축구 보조구장에서 끝난 ‘2026 전국 나주 동계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U-10(초 3-4학년) 부문 우승, U-12(초 5-6학년) 부문 3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나주시축구협회 주최·주관, 나주시·나주시의회·나주시체육회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U-10과 U-12 두 개 부문에 총 18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광산남부FC U-10 선수단은 목포스포츠클럽을 5-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송훈은 최우수선수(MVP) 선수로 선정됐다.

U-12 선수단은 3-4위전에서 강진FC를 3-0으로 이겨 3위에 올랐다.

광산남부스포츠클럽 김선주 감독은 “선수들이



최근 나주스포츠파크 축구 보조구장에서 열린 ‘2026 전국 나주 동계 유소년 축구대회’에 U-10(초 3~4학년) 부문 우승을 차지한 광산남부스포츠클럽 유소년 축구부. (광산남부스포츠클럽 제공)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워크를 발휘했다.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최승식 회장께 감

사드리다”고 전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업 추진 설명회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강화·고령 특화 종목 의무화 추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도내 19개 시·군장애인체육회와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생활체육부 관계자와 시·군지회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 장애인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 내 ‘고령 특화 종목’ 편성을 의무화한 도장애인체육회는 시·군지회 실무자 워크숍과 반다비체육센터 프

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해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지원, 등 록·지정스포츠클럽 운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하계레포츠 프로그램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선수와 동호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 일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025년 장애인생활 체육 시·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술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ótium Bassoon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
Bassoon

일시 : 2026-02-13(금)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